

정읍시의회 올 한해 의정활동

‘동학혁명정신 헌법전문 포함’에 올인

올 한해 정읍시의회는 ‘동학농민혁명 정신 헌법전문 포함’에 사활을 걸었다. 이에 본보는 정읍시의회 의정성과중 가장 대표적인 ‘동학농민혁명 정신 헌법전문 포함’ 추진의 발자취를 걸어보고자 한다.

▲동학농민혁명 정신 헌법전문포함 추진 건의안 채택(6월 23일)

정읍시의회(의장 유진섭)는 제 224회 제1차 정례회에서 동학농민혁명 정신 헌법 전문 포함 추진 건의안을 채택하고 정부와 국회는 개헌시 ‘사람이 사람답게 대접받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인간 삶의 기본’임을 천명한 동학농민혁명의 정신이 대한민국 헌법 전문 맨 앞에 반드시 포함해야한다고 주장하며 동학농민혁명정신 헌법전문 포함 요구 확산에 불을 지폈다.

▲정읍시민 청원 서명운동을 위한 간담회 개최(7월 19일)

정읍시의회는 의정실에서 동학농민혁명 정신의 헌법전문포함 개헌추진 건의와 관련하여 동학농민혁명정신헌법전문포함추진위원회

명유적보존회, 정읍유족회, 정당 정읍지역위원회(더불어민주당, 정의당)가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가졌다.

본 간담회를 주관한 유진섭 의장은 비록 동학농민혁명이 미완의 혁명으로 끝났으나, 19세기 후반 우리나라와 동아시아의 국제 질서의 변화와 증세에서 근대로 이행하는 과정에 큰 영향을 끼쳤으며 3.1운동, 4.19혁명, 5.18광주민주화운동, 촛불시위혁명의 모태가 되는 역사적 사건으로 오늘날 평등사상과 자유 민주주의의 지평을 열었던 동학농민혁명 정신을 대한민국 헌법 제10차 개헌시 헌법 전문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하는 정읍시민 청원 서명운동을 전개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동학관련단체 대표와 정당을 대표해 참석한 관계자 들은 정읍시민 및 전국 유족회원들의 바램인 동학농민혁명정신의 헌법

건의안 채택부터 범국민 서명운동 국회 청원서 제출까지 헌법 개정 행보 밑그림

전문 포함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만들고 상임 공동대표와 집행위원회를 구성해 세부적인 사항을 논의하는 한편, 범국민 서명 및 국회 청원운동을 시작하는데 뜻을 모았다.

▲범국민 서명 및 국회 청원 추진 도청 기자회견(8월 23일)

동학농민 정신 헌법 전문 포함추진위원회(상임공동대표 유진섭 의장 외 8명)는 전라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범국민 서명운동과 함께 국회 청원운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모두발언에 나선 유진섭 의장(상임공동대표)은 촛불시위혁명으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가 지난 5월 18일 광주민주화운동 37주년 기념사에서 제10차 개헌안 경우에 5.18정신을 헌법전문에 포함하겠다고 밝혔지만,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역정을 볼 때 가장 앞자리를 차지해야 하는 정신은 동학농민혁명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청원 서명운동 출정식(8월 29일)

동학농민혁명정신 헌법전문 포함 개헌 청원 서명운동 출정식을 관련단체, 기관, 각 정당, 시민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이어 서울 광장에서 개최했다.

유진섭 의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전 사건인 동학농민혁명정신이

헌법 전문에 포함되는 것에 대해 일부 이견을 표명하는 사람도 있지만, 1893년 사발봉문 작성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동학농민혁명은 봉건사회와 부정부패 척결 및 반외세의 기치를 내걸었던 근대 민주화운동의 이념적 시인이자 민족 대혁명인 만큼 헌법 전문에 포함시키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밝혔으며, 상임공동대표 및 시민 자유발언도 이어졌다. 또한 사발봉문 서명식과 하늘땅 우리 품짓 단원들의 ‘천명’ 공연, 범시민 청원서명운동을 각계각층 인사와 시민들이 뜻을 함께 하고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동학농민혁명정신 헌법전문 포함’ 요구 국회 기자회견(9월 5일)

정읍시의회와 추진위원회 30여명은 국회 정론관에서 ‘동학농민혁명정신 헌법전문 포함’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정읍시의회 유진섭 의장의 기자회견문 낭독과 질의 답변이 이어졌으며, 유진섭 의장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와 국회는 개헌시 자유와 평등, 자주정신, 그리고 인간사회의 지향점인 사람이 사람답게 대접받고,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가 인간 삶의 기본임을 천명한 동학농민혁명 정신이 헌법전문에 반드시 포함될 것 ▲동학농민 혁명의 숭고한 정신이 대한민국 헌법전문에 반드시 포함되기를 바라는 범국민 서명운동과 함께 국회청

원 운동을 벌일 것 등을 발표했다.

▲정읍시민 서명 운동 집중 추진(9월 18일 ~ 9월 27일)

정읍시의회를 비롯한 각 집행위원회에서는 ‘동학농민혁명 헌법전문 포함 개헌관련’ 서명운동을 실시하였다.

본 서명운동은 출정식이후 범시민 분위기 확산을 위해 읍면동별로 서명운동을 시작하였으며, 9월 18일부터 9월 27일까지 10일간 각 집행위원별로 나누어 정읍역, 명동리, 상동 하나로 마트 3개소에서 집중 추진하게 되었다

서명운동에 참여한 시의원들과 집행위원들은 전단지 배포하며 동학농민혁명 정신 헌법 전문 포함해야 하는 이유와 당위성을 시민들에게 알리는데 주력하였고 많은 시민들이 적극 동참하여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주었다

▲국회 청원서 제출(12월 8일)

동학농민혁명 정신의 헌법전문 포함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범시민 서명운동을 통해 참여한 정읍시민 1만592명의 서명부와 함께 국회에 청원서를 제출, 지난 8일 헌법개정특별위원회에 회부됨으로써 헌법 개정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의 밑그림을 그리게 되었다. /정읍=김태환 기자



진안군의회 올 한해 의정활동

지역발전 위한 주춧돌 역할 충실



▶ 박명석 의장의 한마디

“군민들의 참뜻 실현 최선의 노력 다할 것”

“초심을 잃지 않고 군민에게 먼저 다가가는 자세로 군민의 참뜻을 실현할 것”

항상 초심을 잃지 않고, 군민 한분 한분이 우리 지역의 주인이 될 수 있도록 군민을 위한 의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직접 현장에 나가 주민과의 소통으로, 보다 더 낮은 자세로 군민의 고충과 불편을 헤아려 해결하는 의정을 펼쳐나갈 것입니다.

또한 군민 여러분께 먼저 다가갈 수 있는 소중하고 소중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의회 전문성을 높여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에 충실함은 물론, 군민 여러분이 언제든지 찾아오실 수 있는 군민의 참뜻을 실현하는 열린 의회를 실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신년에도 변함없이 진안군의회에 아낌없는 사랑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항상 군민들의 가정에 행복과 건강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제 7대 진안군의회(의장 박명석)는 지난 15일 제2차 정례회를 끝으로 2017년 회기운영 및 의정활동을 마무리했다.

군민의 대의기관으로 진안의 발전을 위한 주춧돌 역할을 해왔으며, 내부적으로는 의회 본연의 기능을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는 한편, 외부적으로는 군민과 소통·화합하는 의정활동을 펼치기도 했다. 이에 본보는 지난 1년간 군민을 위해 땀 흘린 진안군의회 의정활동을 되짚어 본다.

▲자치의정을 통한 각종 민생현안 해결

올 한 해 진안군의회는 두 차례의 정례회와 여섯 차례의 임시회를 통해 총 86일간의 회기 일정을 소화하며 조례안 67건, 예산 및 결산 7건, 결의안 1건, 기타 안건 67건 등 총 142건의 각종 안건을 처리해 군민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 증진에 기여했다.

특히 상·하반기에 걸쳐 광역상수도 확장 사업, 진안고원 고품질농산물, 농·특산물 산지 유통센터 등 진안군 주요 사업현장 28개소를 방문해 사업추진 시 현안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눈으로 확인하며 효과적인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협력으로 군정 방향성 제시와 잘못된 행정의 적극 시정

집행부와 의회 간 상생 발전의 협치를 유지하며, 때로는 집행부에 대한 날카로운 견제와 감시로 군민이 원하는 진정한 소통의 정착을 위해 그 어느 때보다도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쳤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여 국·도비 반납액 최소화, 지역 농산물 판로 구축 등 총69건의 시정 및 개선사항 등을 지적하고, 군정에 대한 건설적인 방향과 기준을 제시하였다. 또한 군정질문 18건, 5분 자유발언 9건 등을 통해 군민의 다양한 행정수요를 탄력적이고 효율적으로 반영했다.

이와 함께 4,019억원에 달하는 2018년도 예산 심의에서도 사업의 타당성과 필요성을 감안해 군민의 입장에서 고민하며 심혈을 기울였다. 지역 경제 활성화, 군민 복지증진, 농업 소득증대 등을 위한 예산이 적절히 편성되었는지 심사한 결과, 사업의 사업성 및 타당성, 효과성이 낮거나 사업비가 과도하게 편성된 24건의 사업에 대해 17억원을 삭감해 예산 낭비를 사전에 예방했다.

한편 긴밀한 상호협조체계를 유지해 시급한 군정현안에 대해서는 협치 하는 바람직한 의회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군민들의 불편사항과 민원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집행부와 정기적인 정책 간담회를 갖고 기관 간 정보공유와 소통으로 원만한

업무추진을 도모했다.

진안군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의정발전에 기여한 공무원들을 선정해 표창패를 수여함으로써 군민을 위해 봉사하는 공무원들이 보람을 찾고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전문성 확보로 의정 역량 강화에 힘써

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하고, 의정연구실 내 분야별 전문도서를 활용해 정책을 연구하며, 이견대립 예방을 위해 의원 간 소통 간담회 등 상시 운영해 원활한 의정활동을 돕고 의정역량 강화에 힘썼다.

조례 입법, 예·결산 심의, 행정사무감사 등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각종 심사기법에 대한 직무연수를 실시하고, 입법·법률고문에 의한 자문을 활용해 의정수행능력을 배양해 나갔다.

▲군민과 소통·화합하는 의회 상 정립

진안군의회는 군민과 소통·화합하며 군민들의 의견을 의정에 반영시키는 데에도 게을

리 하지 않았다. 각종 지역행사와 축제를 찾아 함께하며 군민들의 크고 작은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고, 민원·애로사항 등 불편사항이 발생했을 시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통해 해결방안을 함께 모색해 주민과 집행부 간 행정력 낭비를 줄일 수 있었다.

올해 초에 11개 읍·면 순회 간담회를 통해 각 중 건의사항과 불편사항을 현장으로부터 직접 접수해 군정에 반영하는 등 군민과 함께 소통하는 의정활동은 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더불어 나눔과 사랑의 실천에 앞장서며 군민과 소통·화합하는 따뜻한 의회 상 정립에도 힘썼다. 명절을 맞아 사회복지기관을 방문하여 소외계층을 위한 봉사활동에 앞장서며 지역사회의 귀감이 되고 있다. /진안=우태만 기자